

종교문화유적지 탐방: 영광군 기독교인순교지

1. 탐방목적

- 기독교 신앙에 확고한 믿음과 순교자의 신앙심 계승, 주안의 교제 및 친목도모
-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와 신앙생활의 성숙화 결심

2.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11:30 ~ 18:30

3. 주관, 대상

- 전남대 기독교수회, 종교문화연구소
- 전남대학교 기독교수, 종교문화연구소 관계자 및 관심자

4. 탐방장소

전남 영광 백수, 염산 일원

- 야월교회 기독교인순교지(순교기념관)
- 염산교회 (순교체험관)
- 백수해안도로
- 칠산타워
- 숲쟁이공원

5. 진행일정

- 이동경로: 전남대 → 칠산타워 → 염산교회(순교체험관) → 야월교회 기독교인순교기념관 → 백수해안도로 → 전남대

# 11:30 ~ 12: 35	이동 전남대 ~ 영광 법성포	59km
# 12: 35~ 13: 35	점심 (영광굴비정식), 숲쟁이공원	
# 13: 35~ 14: 50	칠산타워 전망대(111m) 관람	31km
# 14: 50~ 15: 40	염산교회 순교체험관	6.8km
# 15: 40~ 16: 20	야월교회 기독교인순교기념관	5.6km
# 16: 20~ 17: 30	백수해안도로	21km
# 17: 30~ 18: 39	백수해안도로 ~ 전남대	67km

6. 행정사항

- 케주얼한 복장(모자)
- 회비: 1인당 20,000 원, 안전운행 및 규정속도 준수
- 이동: 대형버스(30인승) 또는 승용차

[탐방자료]

영광군은 명칭인 영광(靈光)에서 보듯이 종교적 색채가 강한 지역이다. 한국의 4대 종교의 유적지가 모두 있는 흔치 않는 지역이다. 백수 길용리는 원불교가 탄생한 지역이며, 법성은 불교의 도래지이다. 또한 영광읍에는 천주교의 유적지가 있고, 염산면에는 기독교 순교지가 있는 지역이다.

염산교회 순교기념관

- 주소: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5길 34-30
- 홈페이지 :

영광 염산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출석교인이던 77명의 목숨을 잃었다. 교회 앞의 설문향 수문 앞에서 무거운 돌을 목에 맨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 둘씩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부부, 청년, 젖먹이 동생은 업은 어린 소녀 등이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은 고생이나...” 찬양을 부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노병재 집사와 그의 형제와 일가 22명은 함께 목숨을 잃었다. 당시 담임목사이던 김방호 목사는 퍼붓는 몽둥이 아래에서 가족 8명과 함께 나란히 순교했고, 동역자였던 허상 장로는 아내와 함께 야산으로 끌려가서는 죽창에 찔려 생을 달리했다. 예배당은 불타 없어지고 불길 속에서 강대상을 끄집어내던 목포성경학교 학생 기삼도 마저 폭도들에게 생명을 빼앗겼다.



[77인 순교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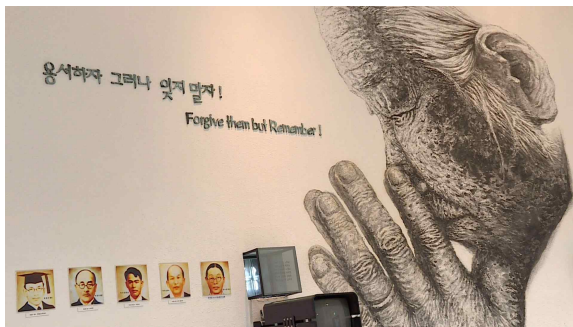


[순교자기념묘]

야월교회 순교지

- 주소: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7길 30-6
- 홈페이지 ; <http://www.>

영광 염산 야월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전교인 순교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게 된다.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 교인이 희생당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 1908년 유진벨 선교사에 의하여 세워진 야월교회 성도들은 일제강점기 하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갔다. 한국전쟁 당시 1950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약 두 달 동안 교인 모두가 순교하게 된다. 5명은 목에 돌을 맨 채로 수장을 당하고 나머지 60명은 생매장 당했다. 1km 정도 떨어진 '큰복재'란 곳으로 끌려가 자신이 묻히게 될 땅을 파아만 했고 죽창에 찔려 죽었다. 순교 이후 야월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지만 이후 다시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된다.



[야월교회 기독교인순교기념관]



[맞잡은 손, 기념관 내]

칠산타워

- 주소: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2-10
- 홈페이지 ; <http://www.>

영광 8경 중 4경인 칠산타워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11m의 전망대이다 (참고로 땅끝 전망대 39.5m, 완도타워 76m, 장흥 정남진 전망대 45.9m, 고흥우주발사전망대 52m, 진도타워 60m). 111m의 의미는 영광군 11개 읍면이 하나로 화합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광활하게 펼쳐진 서해비경인 칠산 앞바다와 주변 육지가 한 눈에 들어와 절로 탄성을 지르게 한다. 2016년 2월에 준공되었다. 타워 주변에는 인근 방파제를 활용한 수변공원, 분수대, 야외체험장, 산책로, 광장 등이 있다.



백수 해안도로

- 주소: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957 일원
- 홈페이지
- 개요:

한국관광 100선에 뽑힐 정도로 아름다운 해안길로 알려져 있다. 2006년 국토해양부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2011년 국토해양부의 제1회 대한민국 자연경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해안을 끼고 도로가 전개되며 백수읍 길용리에서 백암리 석구마을까지 16.8km에 달하는 해안도로, 기암괴석·광활한 갯벌·볼타는 석양이 만나 황홀한 풍경을 연출하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이다. 특히 서해안 일몰시 저녁노을은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해안도로 아래 목재 데크 산책로로 조성된 3.5km의 해안 노을길은 바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걷기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백수해안도로]



[해안도로 저녁노을]

숲쟁이공원

- 주소: 영광군 법성면
- 홈페이지
- 개요: 대한민국 명승 제22호, 아름다운 천년의 숲, 숲쟁이공원은 2006년 <한국의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곳이다. 고려시대 이래 전라도에서 가장 번창한 포구였던 법성포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진성(法聖鎭城) 및 숲을 말한다.

